



정이현

인물에 대한 애착 그리고 책임,
소설가

이 선 실 · 방송작가

정이현의 소설에는 나쁜 여자만 등장한다??

정이현의 소설에는 항상 '불온한 도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그녀의 첫번째 작품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해설 제목이 '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불온한 도발이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론가 이광호는 “정이현의 소설 속에는 악한 여자들이 살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의 해설에 의하면, 정이현 작품 속의 악녀들은 현대의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폭력적이고 사악한 악녀(Femme Fatale)와는 다르다. 정이현의 악녀들은 폭력성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위장술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 실린 여덟 편의 소설은 모두 여성이 주인공이다.

표제작인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나는 레이스가 달린 팬티는 입지 않는다'라는 다소 영똥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강남에 사는 중산층의 주인공 '나'는 사회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역으로 욕망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한다. '나'의 순결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처녀막에 머문다. '나'가 고무줄이 험렁하게 늘어나고 누렇게 물이 빠진 면 팬티를 고집하는 것은 순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이광호는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 대해 “낭만적 사랑을 신화화하는 일반적인 연애소설의 뒤집기”이며, 따라서 “탈연애 소설”로 정의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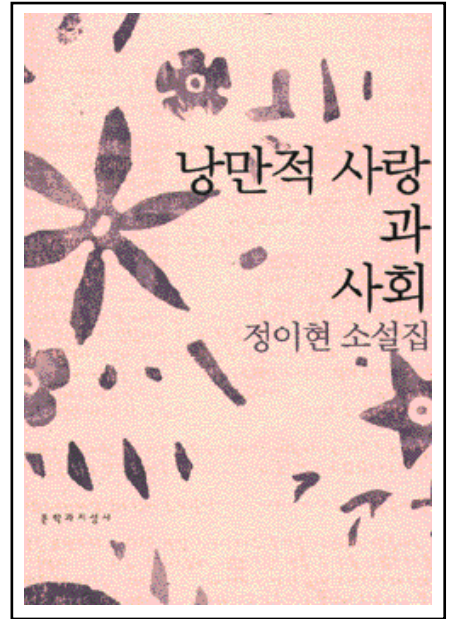
작가 정이현은 소설 속의 인물들에 대해 나쁜 여자라고 단정 짓는 것을 불편해 한다.

“사회적 잣대로 보면 그녀들의 욕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좋지 않으니깐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저는 나쁘다기보다는 약한 사람들, 약하지만 강한 척하는 사람들, 또는 강한 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변으로 그녀의 소설을 돌아보면, 불완전하고 복잡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대해 솔직한 현대인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나'는 전략의 마지막 보루인 순결을 루이뷔통 백과 바꾼다. 그녀는 설마 짝퉁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아니다. 아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절박하게 외쳐댄다,

하지만 작가는 '나'가 그 후로 어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작가는 1인칭의 주인공 뒤에 철저히 숨어서 2006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을 뿐이다.



강남, 현대사회의 욕망

정이현의 소설 속 무대는 주로 강남이 많다. 첫 작품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반포 주공아파트, 「트렁크」의 주인공이 근무하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가 강남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딱히 강남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강남권의 문화가 느껴지는 대단지 아파트 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이현의 주인공들이 '나쁜 여자'로 오인될 만큼 욕망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이런 강남이라는 무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반포라는 강남의 가장 상징적인 곳을 무대로 하고 있다. 반포는 1970년대 개발 붐을 일으키며, 소위 말하는 '줄부' 들을 양산한 곳이다. 그러나 강남 8학군 신화를 낳으면서, 1990년대에는 '입성'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부유층의 상징적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나, 우리는 그 반포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서의 지은 지 15년 된 낡은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다. 주인공의 욕망은 2000년대 강남에서 출발한다. '나'의 친구 헤미는 대책 없이 임신을 했다. 헤미를 임신시킨 남자는 '서울 위성도시 출신, 중학교 평교사인 아버지, 중류권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이다. '나'는 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친구에게 뜨거운 연민을 느끼지만, 헤미가 아무렇게나 어깨에 둘러 멘 오리지널 샤넬 백과 그녀가 타고 온 병아리색 뉴비틀을 보면서 깨끗이 사라지고 만다.

여차피 출발선이 다른 게임이었다. 내가 조그만 무역회사의 여사무원이 되어 나이 들어가거나, 물간 생선회와 식은 LA 갈비집이 포함된 싸구려 뷔페를 피로연으로 결혼식을 올릴 때, 헤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밀라노에서 패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오십 평짜리 빌라트에 신혼살림을 차릴 수도 있었다. 나는, 나는 다르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 척박한 세상과 맞서야 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소설 「트렁크」의 주인공은 강남의 연장선상에 있는 분당에 살며, 강남에 있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 성공한 '그녀'는 자신의 정부인 권을 죽인다. 그녀가 권을 죽인 것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인지 인생 최초의 강간 때문인지는 '그녀' 자신 외에는 모른다. 4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카 2002년형 EF 소나타의 트렁크에 정부와 또 다른 소녀의 시체를 실어놓고, 그녀는 욕망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다.

강남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또 하나의 소설은 「소녀시대」다. 16살의 나는 지방부자의 고명딸인 엄마와 지방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는 미도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소녀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죽었을 때, 스무 살이 되는 것이다. 스무 살이 넘은 어른을 고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소녀는 집을 팔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소녀는 임신한 아버지의 정부를 위해 중절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사진을 찍고, 자작 납치극을 벌인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 후 소녀는 고백한다.



정이현의 소설 속 무대는 주로 강남이 많다. 첫 작품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반포 주공아파트, 「트렁크」의 주인공이 근무하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가 강남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딱히 강남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강남권의 문화가 느껴지는 대단지 아파트 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이현의 주인공들이 ‘나쁜 여자’로 오인될 만큼 욕망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이런 강남이라는 무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남을 무대로 펼쳐지는 여성들의 욕망은 결국, ‘나쁜 여자’의 욕망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욕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건 비밀인데, 소녀 시절도 살아보면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다. 원하면 돈 벌 껌수도 얼마든지 벌렸고 급할 땐 좀 치사하지만 물어버리면 된다. 아저씨 시대보다, 할머니 시대보다 솔직히 짱 멋지지 않은가?

세 소설에서 10대와 20대와 그리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30대임이 분명할 「트렁크」의 세 여성은 각기 다른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이 세 명의 여성은 강남을 무대로 생활하며, 그녀들의 욕망은 강남에서 출발한다.

“강남은 2006년의 한국 사회를 얘기할 때, 분명히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대 한국 사회의 현상이 집약으로 보여지는 곳이죠. 새로운 인간형과 군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역동성도 있고...(중략)... 그런 의미에서 소설 속의 강남은 지리적 강남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남을 무대로 펼쳐지는 여성들의 욕망은 결국, ‘나쁜 여자’의 욕망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욕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1인칭과 3인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1인칭을 많이 쓰는데, 화자는 ‘나’지만, 분명 작가인 나와는 다르죠.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나’나 「소녀 시대」의 ‘나’는 정이현과 다른 ‘내’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내가 그러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육성을 드러내는 것도 지금 이 시대 소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피상적 관계’ 보여주는 정이현식 등장인물

정이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에 대한 ‘피상적 관계’다. 이 피상적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순수」, 「무궁화」, 「흙드라마」, 「신식키친」이다. 사실 정이현은 「낭만적 사랑과 사회」 외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정말 주인공들이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외로워서 만나는 건지,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어쩌다보니 만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런 관계를 가장 소설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궁화」다.

‘무궁화’의 주인공은 소위 주변인이라고 불리는 레즈비언이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2인칭의 화법을 채용하고 있다. 주인공 ‘너’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그녀의 아파트를 기웃거린다.

정이현의 화법은 작가와 주인공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1인칭과 3인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1인칭을 많이 쓰는데, 화자는 ‘나’지만, 분명 작가인 나와는 다르죠.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나’나 「소녀 시대」의 ‘나’는 정이현과 다른 ‘내’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내가 그러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



정이현은 치열한 고민을 하는 작가다. 특히 그녀는 주인공에 대한 책임이 강하다. 정이현이 새로운 작가 세대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인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소설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서술 양식이라면, 정이현은 작가의 시선을 이야기보다는 인물로 옮겨간다. 이야기나 화법과 같은 소설 양식은 인물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흥미진지하다. 한 걸음 떨어져서 세상을 냉정하게 해부하는 작가에게 희망이 보였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정말로 희망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의 생생한 육성을 드러내는 것도 지금 이 시대 소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2년 정이현의 데뷔작에서 작가는 철저하게 작품 뒤에 숨어 있었다. 작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나’는 숨어서 주인공인 ‘나’를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후기에서 그녀는 말한다.

“처음부터 비스듬한 포즈로, 안도 밖도 아닌 곳에 혹은 경계 위에서 있었을 뿐, 저토록 견고한 이 분법의 세계를 열심히 관찰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금 같은 틈새라도 발견하게 되겠지. 나는 다만 즐겁게 욕망한다. ‘내추럴 본 쿨 걸’에게도 나름대로 진정성은 있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작가

4년 후, 정이현의 소설은 달라지고 있다.

제51회 현대문학상 수상 작품인 『삼풍백화점』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1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정이현의 초기작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강남’으로 상징되는 현대 사회의 축소판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무너진 백화점이 만일 서초동이 아닌 강북에 소재한 백화점이었다면, 어쩌면 그 사고 자체가 그렇게 무수한 이미지로 덧칠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인공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는 작가의 냉정함은 ‘삼풍백화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995년 삼풍백화점 근처에 살고 있는 주인공 ‘나’는 우연히 백화점 매장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 R을 만난다. 취업준비생인 ‘나’는 아마도 시간이 많아서이겠지만, 혹은 이미 취업이 확정된 친구들과의 거리감 때문이겠지만, R과 자주 만나게 되고 친하게 된다. R의 집에 가서 같이 비디오를 보거나 맥주를 마셨지만, ‘나’는 한번도 R에게 왜 혼자 사느냐고 묻지 않는다. ‘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나’는 R은 오히려 그것을 섭섭해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음과 마음 사이 일맞은 거리를 측정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겐 몹시 어렵기만 하다”는 것은 정이현 소설의 전작에 흐르는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R은 자기가 없는 동안 언제라도 자기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나'에게 주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열쇠를 사용해본 적이 없고,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서로 소원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

'나'는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한 신문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대한민국이 사치와 향락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여성 명사의 칼럼에 항의 전화를 걸어, 담당기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끝내 울음을 터트렸을 뿐이다.

10년 후, R의 작고 불완전한 은색열쇠는 여전히 '나'의 책상서랍에 있고, R에게서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단편소설에 거는 기대는, 특히 정이현의 전작을 숙독한 독자들이라면 아마도 이쯤에서 소설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계속된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사이월드의 '사람찾기' 기능으로 R의 미니홈피를 찾아보았다. ... (중략)... 열한 번째 미니홈피에 들어가니 때문에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여 한참동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착하게 커다랬다. 잘 보니 둥그런 턱선도 R을 닮은 것 같았다. 더 선명하게 나온 다른 사진들을 보고 싶었지만 사진은 달랑 그것 한 장뿐이었다. 그 아이가 R의 딸이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다.

정이현은 치열한 고민을 하는 작가다. 특히 그녀는 주인공에 대한 책임이 강하다. 정이현이 새로운 작가 세대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인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소설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서술 양식이라면, 정이현은 작가의 시선을 이야기보다는 인물로 옮겨간다. 이야기나 화법과 같은 소설 양식은 인물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흥미진진하다. 한 걸음 떨어져서 세상을 냉정하게 해부하는 작가에게 희망이 보였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정말로 희망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정이현은 작가로서 또 한 단계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의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가슴 설레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가 이런 희망을 기다려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삶에 대한 희망은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말 '문학의 위기' 이후 다시 싹튼 문학에 대한 희망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